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3년 4월 2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자전기과 과장 서기웅(02-2110-5671), 서기관 김성수(02-2110-5523)
수출입과 과장 조영태(02-2110-5331) 사무관 김열규(02-2110-5334)

의료기기 업계 현장 방문 및 업계 대표 간담회
- 의료기기 1세대 벤처창업자와의 만남 -

□ 4월 2일(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레이저 치료기기 분야 대표적 기업인 **(주)루트로닉**에서 열린 의료기기업계 대표 간담회에서 의료기기분야 생산, 수출 등 현장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 (주)루트로닉 황해령 대표는 최근 환율하락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의료기기 수출의 애로점을 전달하고, **환율대응력이 취약한 중소의료기기 업체**들을 위한 **정부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이에 대해 윤상직 장관은 **환율문제**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적극 대응중이라 설명*하고, **수출현장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등에 대해서도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무보) 환변동보험 인수규모 확대('12. 1.1 → '13. 1.5조원), (kotra) 일본내 공동물류센터(2개) 신규 설치 등

** 수출업계 간담회 및 업종별 품목담당관 회의를 정례적(격주)으로 개최 등

- 또한 참석자들 모두 벤처1세대 성공자로서 차세대 벤처신화 창조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그간 노고를 격려하였다.

○ 이날 간담회에는 (주)루트로닉을 비롯, 비트컴퓨터(조현정회장), 인포피아(배병우회장), 바이오스페이스(차기철사장), 씨유메디컬시스템(나학록사장) 등 대표적 의료기기 1세대 벤처창업자들이 참석하였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김성수 서기관(☎ 02-2110-55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1 의료기기 업체((주)루트로닉) 현장 방문 계획

□ 목 적

○ 의료기기산업 생산·수출 등의 애로사항 및 정부정책에 대한 의료기기업계의 의견 청취

□ 일시 및 장소

○ '13. 4.2(화) 10:30 ~ 11:30

○ (주)루트로닉(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219 루트로닉센터)

(주)루트로닉 개요('97년 창업, 대표 : 황해령(57년생)) : 자본금-50억원, 종업원수 181억원, 주생산품 - 레이제 수술기, 매출('12) - 441억원[수출 282억원], 특이사항 : '12년 World Class 300기업 선정, '08년 천만불 수출탑수상·대통령표창

□ 세부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0:30~10:35 ('5)	인사말 & Tea	
10:35~11:10('35)	생산설비 및 임상센터	공장동
11:10~11:30('20)	방문국내 의료기기 산업현황 진단 및 수출관련 간담회	(진행) 전상헌 협회 부회장

□ 간담회 참석자

○ (정부, 5명) 장관님, 전자과장, 세계무역기구과장 및 전자수출 담당자

○ (업계, 5명) 황해령(루트로닉 대표), 조현정(비트컴퓨터 회장), 배병우(인포피아 회장), 차기철(바이오스페이스 사장)

○ (기관, 3명) 전상헌(전자산업진흥회 부회장), 추병양(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기업본부장), 윤종배(무역보험공사 경기북부 지사장)

2 의료기기 산업 개요

□ **(수급현황)** 국내 의료기기산업 **시장규모는** 4조3,064억원으로 '10년(3조9,027억원)에 비하여 10.34% 증가(최근 5년간 연평균 7.21% 성장)

○ '11년 생산액 3조 3,664억원, 수출액 1조 8,537억원, 수입액 2조 7,937억원

*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2,956억달러), 세계시장 점유율 1.3%(39억달러)

<국내 의료기기산업 연도별 수급규모(백만원, %)>

구분	생산	수출	수입	무역수지	시장규모	수입점유율	시장증가율
2007년	2,216,965	959,094	2,001,423	−1,042,329	3,259,294	61.4	12.9
2008년	2,525,203	1,248,138	2,340,883	−1,092,745	3,617,947	64.7	11.0
2009년	2,764,261	1,519,027	2,398,814	−879,787	3,644,047	65.8	0.2
2010년	2,964,445	1,681,619	2,619,895	−938,276	3,902,720	67.1	7.10
2011년	3,366,462	1,853,785	2,793,709	−939,925	4,306,387	64.9	10.3

* 식품의약품안전청, 2011년 의료기기생산수입실적 보도자료

□ **(기업규모)**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체는 21.5%(399사)에 불과, 이들 업체의 생산액이 91.2%(2조 3,024억원)로 대부분을 차지

***** 500억원 이상 업체는 메디슨, 지멘스, 오스템임플란트, 중외메디컬, 신흥 등 8개사

○ 자체연구소 보유 기업은 150여개사(전체의 8.7%)에 불과하고 연구시설·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연구개발 역량이 열세

○ 초음파진단장치, X-ray 등 영상기기와 치과용 치료재료, 콘텍트렌즈 등 소모성 재료 등이 주력 생산품

□ **(산업 경쟁력)** 전반적인 기술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60~70% 수준

○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가 협소하고, 국산의료기기 사용기피

* 국내 대형병원의 국산의료기기 사용률은 5% 수준이며, 그나마도 1천만원 이하의 저가 장비 및 소모품이 대다수(건강보험급여로 지급되는 의료용품의 80%가 수입제품)

□ **(산업부 연구개발)** 국내 의료기기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원천 R&D, 국산제품 인증·내수확대에 집중 지원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사업('12년 279억원 → '13년 262억원)
* 핵심의료기기 제품화 및 인증평가('12년 70억원 → '13년 70억원)
*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산업화기반구축('12년 59억원 → '13년 95억원)
*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12년 18억원 → '13년 18억원)

3 의료기기업체 간담회 참석자 현황

구 분	소속 및 직 위 (주력제품)	성 명	주 요 약 력
	(주) 루트로닉 대표 (레이저수술기)	황해령	·미국 예일대학교 경제학·전자공학 학사 ·미국 코네티컷대 경영대학원 수료 ·미국 Laser Systems, Inc 부사장(아시아 지역 마케팅담당) ·AK Tech, Inc. 대표이사 ·전자의료산업협의회 회장(現)
	비트컴퓨터 회장 (의료정보시스템)	조현정	·인하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인하대학교 대학원 공학 명예박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現) ·한국공학한림원 이사(現) ·대한의료정보학회 부회장(現) ·전자의료산업협의회 회원사(現)
	인포피아 회장 (혈당측정기)	배병우	·서울대 제어계측공학 학사 ·현대정공 기술연구소 연구원 ·대우전자 하이터치팀 연구원 ·전자의료산업협의회 이사(現)
	바이오스페이스 사장 (체성분분석기)	차기철	·연세대학교 기계공학 학사 ·유타대학교 생체공학 석사·박사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Post Doctor ·대림기술연구소 연구원 ·전자의료산업협의회 부회장(現)
	씨유메디칼시스템 사장 (심장충격기)	나학록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강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대학원 ·원주의료기기산업단지 협의회장 ·원주단지 혁신클러스터 지원기관 협의회 의원 ·전자의료산업협의회 회원사(現)